

이모

윤정순

이모는 엄마를 닮아서 참 좋다.
통통한 손가락이랑 목소리도 닮았다.
키를 낮추며 내 눈을 빤히 볼 때는
엄마와 정말 똑같다.
그러다 화들짝 웃을 때는 엄마보다 더 예쁘다.
이모는 심부름도 안 시키고 꾸짖지도 않는다.
나만 보면 좋아라 한다.
버스를 타고 이모 집에 갈 때는
이모가 빨리 보고 싶다.
이모야, 하고 부르면 급하게 뛰어나오며
이모도 내 이름을 부른다.
그 동안 잘 있었냐? 무얼 먹고 싶으냐?
내 마음을 들여다보듯 이것저것 물을 때는
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.
이모는 엄마 동생이지만 이모가 언니 같다.